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진국일꾼 양성
민중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2011년 청지기훈련 복음의 잔치, 회개의 은총



영적으로 후한한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에 몰두어 있는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복음을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복음을 듣게 하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2011년 제3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 4:24)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요일 4:1~3).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만큼 배부르고 건강해지는데(막 8:17~18), 듣는 자에게는 듣는 만큼 더 주신다.

1.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어야 한다(골 2:8~9).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격정하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들어야 한다(막 4:11~14). 말씀이 내려질 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고전 1:18~21). 말씀을 기대하고 갑갑함으로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삶이다.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할 수 있다(롬 10:16).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2. 너희의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라

자신이 계산한 만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대(마 1:22~23, 25).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교회에 나갔어도 복음보다는 교회 안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일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한다(마 11:25~27).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간절히 원한다. 주님께 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신다(마 5:6).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목마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진과 약물이 되고, 양식이 되며 천상의 천국이 되신다(골 1:16, 18~20). 복음은 영혼의 갑갑함으로 듣기 못할 때 들을 수가 있다.

3. 또 더 받으라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듣기 원하는 마음을 더 주신다(엡 3:14~19; 벧후 3:15~16). 복음은 들을수록 진리를 더 확실하게 된다(롬 1:16~17).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안에 살 때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엡 3:17~19), 종만한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더’(more)는 인간의 자성과 이상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복음만이 참 지혜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다(골 1:13~17).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일 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골 2:2~3; 롬 10:17).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복음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듣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자주 가서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바란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은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이 개혁입니다(고전 15:31).

*다음 주일, 2011년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교회일정 11월

6일(주) 2011년 제7차 성찬식(1~5부예배)
16일(수) 평가당회(수요2부예배 후)
18일(금) 주수감개월 헌양축대(1인 1악기) 20일(주) 주수감개주일

11월 4일부터 금요일안침죄 교구좌식 변경 시행(교구좌식 변경표, 본지 7면)

제44대 장로 · 제24대 안수집사 제52대 권사 임직예배

지난 26일, 수요2부예배 시에 있었던 임직식은 은혜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실한 종들이라 16:24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명단은 본지 7면

THE MEAL OF THE LAST SUPPER

⁽³⁰⁾So they asked him, "What miraculous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³¹⁾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 ⁽³²⁾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⁴⁰⁾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John 6:30-40)

Specifically, John chapter six begins with the story of the five barley loaves and two fish that Jesus used to feed over five thousand people who had gathered near Him. This miracle impressed everyone, so much so that the Jews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had been waiting for. The people wanted to forcefully make Jesus their king.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 (Jn. 6:14-15). The very next day the crowd found Him again and insisted that He perform more miracles so that they could believe He was the Messiah, "So they asked him, 'What miraculous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Jn. 6:30). Their attitude and behavior is exactly the same as today's 21st century Christians. People keep asking and praying for more miracles. People want Jesus to perform more in order for them to believe. Today we come together for the Lord's Supper and we need to see and receive His miracle from this special meal.

The meal of the Lord's Supper highlights God's existence in this life. How can Jesus show us that God is real? What kind of things do we need to see in order to believe? The Jewish crowd told Jesus, "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n. 6:31).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Jn. 6:32-33). Just as the manna came from God, so does the Son. The people still misunderstood, wanting only that which would satisfy their physical needs, "'Sir', 'they said,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Jn. 6:34). This whole universe is a sign of the reality of God's presence. You are a sign of His existence. Jesus is the center of the realness of God. He is the One who makes God real.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Jn. 6:35). We always have Jesus around to prove to us that God is real, and that this real God really loves us.

The meal of the Lord's Supper is plentiful. How can a tiny piece

of bread and a small little cup be considered plentiful? The Lord's Supper is plentiful because it gives us the presence of Christ. At His Table we are fed, nourished, and sustained by the One who is the Lord of life. Jesus is the One who reveals to us the meaning of life. He declares,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n. 6:35). No one who partakes of Jesus Christ will ever be hungry or thirsty! Do you believe it? Remember also that the Lord's Table has enough room for others. There is a chair for everyone, no one is excluded. There's more than an abundance of God's redeeming grace to go aroun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4-25). All the answers and all the grace anyone needs is right there.

The meal of the Lord's Supper gives us eternal hope and great expectations. Jesus said,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Jn. 6:40). God's will is for us to believe in Jesus and have eternal life. Do you have this eternal hope?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Jn. 6:48). When you eat the Lord's Supper meal you have life, "I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This bread is my flesh,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Jn. 6:51). 1 Corinthians 11:26 says,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Isn't this a great expectation? Jesus died and resurrected for you, and He is coming back again. Is this your proclamation?

My dear friends,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Why do you want more signs? Please concentrate on the Bible and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Let's gather together now at the Lord's Table and take the bread and cup that He offers to each one of us in remembrance of His redeeming work. Amen. 

성만찬의 음식

⁽³⁰⁾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³¹⁾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³⁹⁾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⁴⁰⁾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0~40)



김성환 목사

특 별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온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사로 시작됩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 6:14~15). 바로 그 다음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더 많은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요 6:30). 그들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게끔 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행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재를 강조한다

성만찬의 음식은 삶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진짜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불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 6:31)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32~33)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신들의 육체적 필요만을 채우기 원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여전히 오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요 6:34).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적이며, 여러분은 주님께서 실재하심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되심의 증시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요 6: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짜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풍성하다

성만찬의 음식은 풍성합니다. 어떻게 작은 빵조각과 조그마한 잔을 보고 풍성하다는 것일까요? 주의 만찬이 풍성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탁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자라며 양육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결코 주리지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주의 식탁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에 쫓겨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록 풍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였으니” (고전 11:24~25). 이처럼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모두 주의 만찬에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준다

성만찬의 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줍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 6:40)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6:51). 고린도전서 11:26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크게 기대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더 찾고 있습니까? 왜 표적을 더 달라고 하십니까? 제발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주의 식탁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떡과 잔을 취하십시오. 아멘.

십자가 복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에베소서 3:8)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하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임을 밝혔다(엡 3:1~8).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풍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은 바울이 전하는 풍성함과 다르다. 우리는 풍성함을 '부유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5~16).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가룟 유다가 범했던 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마 26:14~15). 더 이상 헛된 일에 힘을 쏟지 말고(마 6:19),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에 집중해야 한다(잠 11:4).

● 선하심이 한량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는 선하심이 있다. 이것은 영원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고집스럽게 붙들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멸시하

고 있다(로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로 3:25).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욥 1:3). 한량없는 선하심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히 9:22).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회개하면 주님의 선하신 은사를 들을 수 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 은혜가 한량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 은혜는 사랑과 자비로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엡 2:7).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엡 2:10).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복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엡 2:1~3). 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존경 받을 만한 신약 인격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엡 5:8).

● 영광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곧, 영광의 풍성함이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엡 1:18).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다(로 8:17~18). 요나는 이것을 알았지만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까지 했다(욥 2~4장). 영광의 풍성함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어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은 이와 같은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기적이다. 이 기적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마 17:2~5). 이때 한량없는 선하심, 은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것을 감추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 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종착지는 지옥이다. 인격자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 아멘.

메시아의 죽음 95

칼, 검,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막 14:48)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의 면하였으며, 이제 강도로 취급하고 있다. 강도로 취급 받는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마 26:55).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기까지 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눅 22:52).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강도처럼 취급 당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강도짓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단지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강도로 취급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막 14:49). 예수님은 단지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이었지만,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결정은 예수님이 강도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 그리고 율법과 전통의 수호가 예수님을 강도로 결정한 이유였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강도로 결정한 그 자들이 바로 강도였던 것이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며 확실하게 가르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막 11:17).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진히 하신 비유에 기록되어 있다(눅 10:30,36).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의 대령사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행한 강도짓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세히 밝히시며, 꾸짖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마 23:4,9,13,15~16,23,25,27,29). "행방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통지셨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진리를 바꾸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세운 율법과 전통으로 진리를 대적하였다.

강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악한 자의 대령사였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강도는 약탈자, 살인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결정했던 것이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요 18:38~40). 악명 높았던 바리새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이다(막 15:7). 이것이 진리를 대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진리를 고대하며, 진리를 연구하던 사대학들의 결정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며 칼, 검, 몽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있지 않은가? 주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로 오실 것이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칼, 검, 몽치를 들고 있는 자신의 강도됨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00시)에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다

속속을 정화하고 여기저기 도는 동안 우리의 눈에는 빨간 깃발과 공안들만 보였다. 그 순간, 지난해에 왔던 어느 팀이 이곳에서 첫 사역을 나갔다가 잡혀서 사역 기간 내에 귀국소에 감금되어 몇 고생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들의 감시가 삼엄하여 전 대원이 두렵고 떨림을 느껴 우리는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15구마다 감시병이 있다는 말에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가까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

첫날 한 가정을 방문하여 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와 두 딸과 아들이 함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왜?”라고 물어 보니 전화하러 간다고 했다. 문득 신고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빨리 떠나려는데 전화기를 들고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했다.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 차를 타고 그곳을 벗어났다. 아무리 공안들이 철통 같이 지킨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유옥련(권사, 17교구)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천사도 홀모하는 영광스런 복음 사역에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에 도착하였다. 첫날 정탐 사역을 하며 사탄이 강력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았다.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불교 신자임을 말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앞에 처음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부터 주님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였고,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복음을 듣도록 전하면 주님께서 복음을 들은 그들 심령에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거룩한 용기를 주셨다. 그들이 자신은 불교 신자라면서 거부하면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복음을 읽게 하고 듣도록 하였고, 영접기도까지 읽고 따라하면 이 기도가 그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전하였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전도지를 뺏으면서 마을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임을 생각하며 그 후로는 방해를 받아도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다. 사물이 변하여 바물이 되었던 것처럼 위협하던 그들도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였다. 또한 영적 도전이 거세어지는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영적으로 더욱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하였다.

김종희(권사, 20교구)

나 같은 죄인에게도

3개월 동안의 팀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육으로, 훈련으로 잘 준비되었다고 믿으며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기다리는 상황은 두려움과 떨림, 알 수 없는 긴장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 만족스럽게 전도하고 싶었으나 짧은 시간에 긴장감 속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저날수록 안정감을 찾으며 팀원끼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소수의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실망보다는 오히려 설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아쉬워하던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추수 때의 일꾼으로 써 주시고 공안이라는 말 한 마디에 초긴장 상태로 두려워 떨며 주님보다는 인간을 무서워하는 나약하고 의심 많고 믿을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남준자(집사, 14교구)

감격의 눈물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들어왔다고 했고,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성경책을 보여주며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우리를 교회로 안내하였습니다. 닫힌 창문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의 일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흘린 피와 사랑의 수고가 이 땅에 적셔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사랑합니다.

허은숙(권사, 15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일(수) ~ 11월 9일(수)	8교구 2팀	김광선



임직자 명단 / 새가족

임직자 명단

제44대 장로(총 10명)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영한	18	10	변창대	10	94-954	임연수	21	546	현준봉	22	93-98
남웅술	9	80-755	안연식	18	91-944	최현구	13	2002-0286			
박석산	7	91-52	이희우	14	93-1022	허만선	5	82-648			

제24대 안수집사(총 43명)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강주원	10	92-652	김대봉	20	2000-0324	송인열	9	89-839	전승기	23	96-291
김홍수	8	89-215	류동현	13	92-614	심성현	12	82-711	전홍주	21	88-669
권태선	19	86-491	문한성	5	92-422	송현열	19	89-399	정관록	17	91-384
김석교	16	2001-0163	박광용	14	88-900	심재천	20	92-1354	정남호	1	91-381
김갑식	7	91-176	박근호	24	2006-0043	원필호	7	2000-0364	조준태	22	2000-0159
김태학	14	2005-0049	박삼성	15	95-253	이봉준	17	96-554	최병일	5	2002-0291
김동태	6	82-351	박병연	2	2000-0320	이윤복	6	97-619	최환식	4	94-1297
김승환	2	99-337	박기환	16	96-1100	이영란	4	92-1150	최한태	3	87-331
김 욱	1	99-592	박관수	5	2009-0178	이영일	22	84-1236	황경석	4	2000-0389
김경호	8	92-564	배현주	23	3661	이영현	20	2003-0212	황석찬	15	95-100
김창효	12	98-1155	서 주	15	02-1256	임정현	12	96-534			

제52대 권사(총 84명)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이름	교과	교적번호
강순용	4	89-1329	김준성	11	82-201	신승호	6	98-973	이흥록	6	100-121
강성애	10	80-734	김정호	2	90-380	신승범	16	2005-0019	이희화	6	82-227
박숙단	15	85-94	김진화	8	92-1321	안진희	9	91-111	임길영	2	84-232
권민숙	6	98-331	김정삼	23	85-416	안재하	6	97-89	임은혜	1	2005-0191
권진숙	6	95-318	김원급	17	80-516	안정희	17	2813	임정화	24	91-1158
김경삼	18	88-622	김정희	12	4360	양영록	16	93-213	장승희	8	88-357
김경숙	3	89-979	남준석	14	95-402	양은수	11	80-187	장승향	2	87-503
김기복	6	98-1045	명진숙	18	88-320	오진희	3	89-71	장승태	7	83-629
김남순	10	2002-0288	박경혜	13	92-614	윤부기	5	87-431	장영미	14	89-114
김명숙	7	94-1192	박순애	12	82-711	이경순	5	99-935	장옥자	12	79-87
김민희	13	92-887	박성준	10	82-242	이광주	21	89-841	정계진	5	94-1086
김명화	17	85-411	박성주	9	86-279	이덕심	10	84-56	정미선	15	91-2018
김석영	7	81-61	박정혜	9	2005-0094	이명숙	7	79-601	조영남	15	87-249
김지숙	22	92-1265	박영희	8	87-446	이미자	4	2005-0250	조옥환	24	82-129
김순애	15	91-532	박원숙	4	87-720	이복남	19	95-1427	주혜연	5	85-58
김승희	22	85-274	박현숙	3	79-526	이월남	5	93-329	차은주	20	82-212
김진애	15	93-1263	백문희	13	88-418	이은주	2	2004-0437	최양옥	24	1673
김진희	11	86-4	송성자	13	2002-0018	이경미	3	89-596	최영옥	9	888
김원진	14	91-131	송정희	10	86-24	이정희	5	85-639	최정임	16	81-1022
김재춘	8	82-273	신동후	1	89-1413	이정현	23	191	한은주	20	1889
김정남	8	94-360	신시연	21	2003-0069	이정희	20	84-73	황민희	23	84-1004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11월 4일(금요일)부터 시행

본당 1층 좌석배치

강 단

6 교구

13 교구

1 교구

선교회
장학생
대학부
청년부

9 교구

24 교구

4 교구

16 교구

17 교구

22 교구

14 교구

2 교구

방문
자석

애바
다부

10 교구

10 교구

본당 2·3층 좌석배치

18 피구	12 피구	11 피구	23 피구	7 피구	8 피구
20 피구	15 피구	21 피구	5 피구	3 피구	19 피구

새가죽양육부 수료자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다

✝ 어려서부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리하시
 네 놀라운 은에 가운데 거하게 하신 여호와 하
 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과 한
 단 속에서든 저를 구하신 길로 지키시며 인도하
 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연교회로 인도하셔서
 참 주와 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
 합니다. 걸어가신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믿
 으니 모든 것을 넘기니. (강해역)

✦ 여러 교인들의 오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던 중 사순절의 추천으로 충현교회에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의 불안하고 외로운 심마에 위로와 구원이 되어서는 분이시며, 십자가는 많은 믿은 나쁜 믿음은 되도록 감싸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교회생활로 내가 정화되고 겸손해지는 기쁨이 든다. 항상 바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내 환경과 상황,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박미영)**

+ 친구와 권유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최연의
 또 태어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
 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기에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신 예수
 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매달려 올린신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나 또한 십자가 십
 자가로 그 이름을 부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
 가에서 고통 받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따르
 는 성가세에 내 수종되는 고통을 감당해 주님께
 드려야 하느니 소중하니 삼삼 하겠다. (한영애)

✚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의 자녀로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 하나님께 올



바로 쓰임 받는 성도로 생활하기를 기도드린다.

(이원연)

+ 충언교와 집사님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참 충언인 분, 하나님의 독생자,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아끼는 보물을 흘리신 분,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를 속죄, 구원, 기도와 복음의 핵심이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모든 것의 기원이 주님의 사랑이 되었다. (제2주)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2896	유리아	외선부	25	황정미
2897	조금자		16	신조자
2898	정경선	양육반	22	김구형
2899	이윤진		22	박훈란
2900	이수연	양육반	17	김옥희
2901	김성미	양육반	3	이정미
2902	박성남		6	김영모

